



영소침구경에 수록된 금침혈과 금구혈 연구

민도현^{1*} · 우지연^{1*} · 윤동학² · 김송이³ · 김승태^{1,4}

¹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과, ²경희운동학한의원, ³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해부경혈학교실, ⁴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과학과

A Study on Contraindicated Acupoints for Acupuncture and Moxibustion in *Yeongsochimgugyeong*

Dohyun Min^{1*}, Jiyeon Woo^{1*}, Dong Hak Yoon², Song-Yi Kim³, Seungtae Kim^{1,4}

¹Department of Korean Medicin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²KyungHee YDH Oriental Clinic,

³Department of Anatomy and Acupoint, College of Korean Medicine, Gachon University,

⁴Department of Korean Medical Scienc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Objectives : This study aims to compile the contraindicated acupoints for needling and moxibustion found in *Yeongsochimgugyeong* and to assess the accuracy of their cited sources. **Methods :** A comprehensive review was conducted to identify and catalog contraindicated acupoints for needling and moxibustion in *Yeongsochimgugyeong*. Citation accuracy was evaluated by comparing the explanatory notes with the referenced classical texts. In cases of inaccurate citations, the correct sources were inferred through cross-referencing with other historical medical literature. **Results :** In *Yeongsochimgugyeong*, contraindications for needling and moxibustion are noted immediately after the name of each acupuncture point. A total of 27 acupoints were contraindicated for needling and 27 for moxibustion. With the exception of SP14, all contraindicated acupoints appear in the *Uihakipmun*. Furthermore, the rationale provided for these contraindications closely mirrors the content found in *Chimgudaeseong*, indicating its influence in the organization of textual evidence. **Conclusions :** The contraindicated acupoints listed in the *Yeongsochimgugyeong* largely correspond to those recorded in the *Uihakipmun*, and the reasoning behind these contraindications strongly reflects the influence of the *Chimgudaeseong*.

Key words : *Yeongsochimgugyeong*, acupuncture, moxibustion, acupoint, contraindicated acupoint

서론

『영소침구경(靈素鍼灸經)』은 해방 이후 한의학 교육이 도제식에서 학제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편찬된 경락경혈학 및 침구학 교재로, 동양의약대학 권영준 교수가 전광옥 선생의 원문을 바탕으로 집필하여 1954년에 완성하였다¹⁾. 『영소침구경』은 총론,

십사경맥 및 소속 경혈, 경외기혈 등 경락경혈학 및 침구학의 기초 이론과 응용법을 포괄하고 있으며, 점차 실전되고 있던 33종의 수기보사법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법과 다양한 임상 응용법을 기술하고 있어 교육적·의학적 가치가 높다²⁾. 최근 『영소침구경』의 저자와 관련 인물, 편찬 과정, 내용 등을 소개하는 연구와²⁾ 『영소침구경』에 수록된 보사법(補瀉法)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면서¹⁾ 『영

Received October 11, 2025, Revised November 3, 2025, Accepted November 13, 2025

Corresponding author: **Seungtae Kim**

Department of Korean Medical Scienc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49 Busandaehak-ro, Mulgeum-eup, Yangsan 50612, Korea
Tel: +82-51-510-8473, Fax: +82-51-510-8437, E-mail: kimst@pusan.ac.kr

*These authors equally contributed to this work.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2-Year Research Grant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소침구경』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근현대 한의학 교육에서 『영소침구경』이 지니는 가치에 비해, 관련 연구는 아직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침구요법은 기계적·전기적·열 자극 등을 활용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침습적 의료기술로, 시술 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옛 의가들은 침구 시술 시 주의해야 하는 경혈들을 다양한 형태로 의서에 기록하였으며, 실제로 『침구갑을경』³⁾, 『천금요방』⁴⁾, 『천금약방』⁴⁾, 『동인수혈침구도경』⁵⁾, 『침구자생경』⁵⁾, 『동인침구경』⁶⁾, 『태평성혜방』⁶⁾, 『의학입문』^{7,8)}, 『동의보감』^{9,10)}, 『침구대성』^{11,12)} 등 다양한 의서에서 금침혈(禁鍼穴) 및 금구혈(禁灸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영소침구경』은 현대의 경락경혈학 교재와 비슷하게 12경맥과 소속 경혈을 정리하였고, 그 뒤에 독맥, 임맥 및 소속 경혈을 기재하였다. 또한 각 경혈에 대한 설명은 경혈의 이름, 이명(異名), 금침혈 또는 금구혈 여부, 오수혈 및 오행 속성을 먼저 기재하고, 그 뒤에 부위(部位), 취혈(取穴), 해부(解剖), 주치(主治), 부여(附餘), 비고(備考)의 순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다(Fig. 1)²⁾. 그런데 『영소침구경』의 ‘비고’에는 자침 깊이, 뜸 시술 횟수, 침구금기 등 침구 시술과 관련된 내용이 『소문』, 『동인수혈침구도경』, 『의학입문』 등 인용된 문헌과 함께 기재되어 있어 출전과 근거가 비교적 명확한 반면, 경혈의 이름 뒤에 존재하는 금침혈과 금구혈 표기는 별도의 설명이 없어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이에 저자들은 『영소침구경』에 기재된 금침혈 및 금구혈을 정리하고, 『영소침구경』의 ‘비고’와 다양한 문헌에 수록된 금침혈 및 금구혈 관련 내용을 비교함으로써, 해방 직후 경락경혈학 및 침구학 교재로 사용된 『영소침구경』의 침구금기에 대한 문헌적 근거를 밝히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 사용된 『영소침구경』은 (전)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김경식 교수(동양의약대학 14기)가 (전)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이준무 교수(동양의과대학 17기)에게 전한 복사본이다.

2. 『영소침구경』에 기재된 금침혈 및 금구혈 추출 및 타 의서와 비교

『영소침구경』 중 경혈의 이름 바로 뒤에 ‘금침혈’ 또는 ‘금침(禁鍼)’으로 기재된 경혈을 금침혈로, ‘금구혈’ 또는 ‘금구(禁灸)’라 기재된 경혈을 금구혈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금침혈과 금구혈은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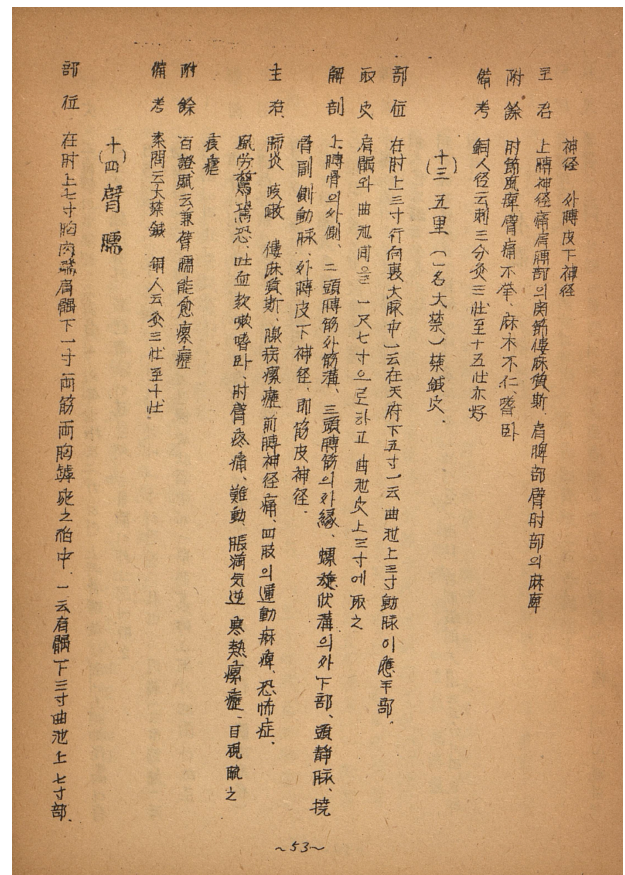


Fig. 1. Excerpt from *Yeongsochimgugyeong*, courtesy of Dr. Han Ki-chun, Maek Korean Medicine Clinic.

고’에 다수 인용된 문헌인 『침구갑을경』³⁾, 『동인수혈침구도경』⁵⁾, 『의학입문』^{7,8)},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의서인 『동의보감』^{9,10)}, 명대(明代)의 대표적인 침구전문의서 중 하나인 『침구대성』^{11,12)}에 금침혈 및 금구혈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였다.

3. 금침혈 및 금구혈 인용의 정확성 확인

『영소침구경』은 ‘비고’에 침구 시술법 및 침구금기에 대한 출전이 기록되어 있기에, 『영소침구경』에 수록된 내용과 『침구갑을경』, 『동인수혈침구도경』, 『침구자생경』, 『십사경발휘』¹³⁾, 『의학입문』 등 문헌에 실제로 기재된 내용을 비교함으로써 출전 및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영소침구경』에서 경혈의 이름 뒤에 금침혈 또는 금구혈이라 기재되었고, ‘비고’에 ‘금침’ 또는 ‘금구’라는 표현이 존재하거나 침구금기 관련 내용이 수록된 경우, 출전으로 기재된 문헌을 조사하여 같은 내용이 수록된 것이 확인되면 정확히 인용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반면 ‘비고’에 기재된 침구금기와 문헌에 실제로 기재된 내용이 다르거나 침구금기 관련 내용

이 기술되지 않은 경우, 『침구잡을경』, 『동인수혈침구도경』, 『의학입문』, 『침구대성』 등 다른 의서에 기재된 침구금기 관련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4. 문헌의 판본

『영소침구경』의 '비고'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한 문헌의 판본은 다음과 같다. 『침구잡을경』은 명대 중기 재간본(再刊本)인 의통정맥전서(醫統正脈全書)에 수록된 판본이고, 『천금요방』과 『천금의방』은 송대(宋代) 교정의서국(校正醫書局)의 교정을 거친 송본(宋本)이며, 『동인수혈침구도경』과 『십사경발휘』는 『속수사고전서(續修四庫全書)』에 수록된 판본이고, 『침구자생경』은 『사고전서(四庫全書)』에 수록된 판본이며, 『의학입문』은 1765년에 발간된 서림여성구(書林餘聖久)의 간본(刊本)을 바탕으로 교정하여 1931년에 출판된 귀섭산방(掃葉山房) 교정본이고, 『동의보감』은 갑술완영중간본(甲戌完營重刊本)의 영인본(影印本) 중 널리 보급된 남산당(南山堂) 출판본이고, 『침구대성』은 명(明)나라 만력(萬曆) 초 간본(初刊本)인 산서(山西) 조문병(趙文炳) 각본(刻本)을 바탕으로

황명당(黃明堂)이 교정한 판본이다.

결 과

1. 『영소침구경』에 기재된 금침혈

『영소침구경』에 기재된 금침혈은 오리(LI13), 승읍(ST1), 결분(ST12), 기충(ST30), 기문(SP11), 청령(HT2), 낙각(BL8), 옥침(BL9), 승근(BL56), 황골(KI11), 삼양락(TE8), 노식(TE19), 각손(TE20), 상관(GB3), 승령(GB18), 견정(GB21), 연액(GB22), 슬양관(GB33), 영대(GV10), 신도(GV11), 뇌호(GV17), 신회(GV22), 신정(GV24), 화음(CV1), 신궐(CV8), 구미(CV15), 단중(CV17)으로 총 27개였다. 이 경혈들이 『침구잡을경』, 『동인수혈침구도경』, 『의학입문』, 『동의보감』, 『침구대성』에도 금침혈로 기재되었는지 조사한 결과, 『침구잡을경』에 9개, 『동인수혈침구도경』에 15개, 『의학입문』에 27개, 『동의보감』에 25개, 『침구대성』에 24개가 금침혈로 기재되어 있었다(Table 1).

Table 1. Contraindicated acupoints for needling in *Yeongsochimgugyeong*

<i>Yeongsochimgugyeong</i>		<i>Chimgugap-eulgyeong</i>	<i>Donginsuhyeol-chimgudogyeong</i>	<i>Uihakipmun</i>	<i>Donguibogam</i>	<i>Chimgudaeseong</i>
Meridian	Acupoint					
Large Intestine	LI13 (手五里)	○	○	○	○	○
Stomach	ST1 (承泣)	×	○	○	○	○
	ST12 (缺盆)	○	○	○	○	○
	ST30 (氣衝)	×	○	○	○	○
Spleen	SP11 (箕門)	×	×	○	○	○
Heart	HT2 (青靈)	×	×	○	○	×
Bladder	BL8 (絡却)	×	×	○	○	○
	BL9 (玉枕)	×	×	○	○	○
	BL56 (承筋)	○	○	○	○	○
Kidney	KI11 (橫骨)	×	×	○	○	○
Triple Energizer	TE8 (三陽絡)	○	○	○	○	○
	TE19 (顛息)	○	○	○	○	○
	TE20 (角孫)	×	×	○	○	○
Gall Bladder	GB3 (上關)	○	○	○	○	○
	GB18 (承靈)	×	×	○	○	○
	GB21 (肩井)	×	○	○	○	○
	GB22 (淵腋)	×	×	○	×	×
	GB33 (膝陽關)	×	×	○	×	×
Governor Vessel	GV10 (靈臺)	×	×	○	○	○
	GV11 (神道)	×	×	○	○	○
	GV17 (腦戶)	×	○	○	○	○
	GV22 (顛會)	×	○	○	○	○
	GV24 (神庭)	○	○	○	○	○
Conception Vessel	CV1 (會陰)	×	×	○	○	○
	CV8 (神闕)	○	○	○	○	○
	CV15 (鳩尾)	○	○	○	○	○
	CV17 (臍中)	×	○	○	○	○

○ : mentioned as a contraindicated acupoint, × : not mentioned as a contraindicated acupoint.

『영소침구경』에 기재된 27개 금침혈의 '비고'에 기재된 자침 금기 관련 내용을 출전과 교차 비교해본 결과, 20개는 출전이 정확하였고, 3개는 출전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으며, 3개는 출전과 근거가 없었고, 1개는 저자가 금침혈로 분류한 이유를 직접 기재하였다. 출전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3개의 경혈은 횡골(KI11), 신도(GV11), 회음(CV1)이며, 이 세 경혈은 『영소침구경』의 '비고'에 '銅人經云禁鍼 또는 銅人經云禁鍼穴'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동인수혈침구도경』에 수록된 내용을 확인해보니 세 경혈 모두 금침혈이라는 언급이 없었다. 하지만 횡골(KI11)과 신도(GV11)는 『의학입문』, 『동의보감』, 『침구대성』에 모두 금침혈로 수록되어 있었고, 회음(CV1)의 경우 「의학입문·경혈기지(經穴起止)」, 「동의보감·임맥유주급공혈(任脈流注及孔穴)」에 자침 가능한 경혈로 기술되어 있었지만 「의학입문·금침혈」, 「동의보감·금침혈」, 「침구대성·금침혈가(禁鍼穴歌)」, 「침구대성·임맥경혈주치(任脈經穴主治)」에 금침혈로 수록되어 있었다(Table 2).

출전과 근거가 없는 3개의 경혈은 연액(GB22), 슬양관(GB33), 영대(GV10)이다. 다른 문헌에 수록된 이 세 경혈의 침술 관련 내용을 조사해보니, 연액(GB22)과 슬양관(GB33)은 『침구잡을경』, 『동인수혈침구도경』, 『동의보감』, 『침구대성』에 자침 가능한 경혈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의학입문』에 금침혈로 기재되어 있었고, 영대(GV10)는 『영소침구경』의 '비고'와 『동인수혈침구도경』에 금침혈이라는 언급이 없었지만 『의학입문·금침혈』, 「동의보감·금침혈」, 「침구대성·금침혈가」에 금침혈로 수록되어 있었다. 견정(GB21)은 경혈의 이름 뒤에 금침혈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지만, 그 사유를 다른 문헌에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저자가 '비고'에 '初學者는 特히 刺鍼을 慎之하라'고 직접 언급하였다.

2. 『영소침구경』에 기재된 금구혈

『영소침구경』에 기재된 금구혈은 경거(LU8), 영향(LI20), 하관(ST7), 두유(ST8), 인영(ST9), 은백(SP1), 음릉천(SP9), 복결(SP14), 주영(SP20), 견정(ST9), 정명(BL1), 승광(BL6), 천주(BL10), 백환수

(BL30), 승부(BL36), 은문(BL37), 위중(BL40), 양지(TE4), 천유(TE16), 사죽궁(TE23), 두임읍(GB15), 지오회(GB42), 척중(GV6), 아문(GV15), 풍부(GV16), 뇌호(GV17), 소료(GV25)로 총 27개였다. 27개의 금구혈이 『침구잡을경』, 『동인수혈침구도경』, 『의학입문』, 『침구대성』에도 금구혈로 기재되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침구잡을경』에 13개, 『동인수혈침구도경』에 17개, 『의학입문』, 『동의보감』, 『침구대성』에 복결(SP14)을 제외한 26개가 금구혈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Table 3).

다음으로, 이 경혈들의 '비고'에 기재된 뜸 시술 관련 내용을 출전과 비교해본 결과, 27개 금구혈 중 24개는 출전이 정확하였으나, 음릉천(SP9), 복결(SP14), 위중(BL40) 3개 경혈은 출전이 정확하지 않았다. 음릉천(SP9)의 경우 『영소침구경』에서 금구혈로 분류한 근거가 『동인수혈침구도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동인수혈침구도경』에 금구혈이라는 언급이 없었고, 『의학입문』의 「경혈기지」와 「금구혈」, 『동의보감』의 「족태음비경좌우범사십이혈(足太陰脾經左右凡四十二穴)」과 「금구혈」, 『침구대성』의 「금구혈가(禁灸穴歌)」에 금구혈로 기재되어 있었다. 위중(BL40)의 경우 『영소침구경』에서 금구혈로 분류한 근거가 『침구잡을경』과 『십사경발휘』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이 두 서적에 금구혈이라는 언급이 없었고, 다른 서적인 『의학입문』의 「경혈기지」와 「금구혈」, 『동의보감』의 「족태양방광경좌우범일백이십육혈(足太陽膀胱經左右凡一百二十六穴)」과 「금구혈」, 『침구대성』의 「족태양경혈주치(足太陽經穴主治)」와 「금구혈가」에 금구혈로 기재되어 있었다. 복결(SP14)은 『영소침구경』의 '비고'에 '醫學入門云禁灸'라고 기재되어 있었지만, 『의학입문』에 수록된 내용을 확인해보니 뜸 시술이 가능한 경혈이었으며, 『침구잡을경』, 『동인수혈침구도경』, 『십사경발휘』, 『의학입문』, 『동의보감』, 『침구대성』 중 복결을 금구혈로 규정한 문헌은 없었다(Table 4).

Table 2. Comparison of 3 misquoted contraindicated acupoints for needling in *Yeongsochimgugyeong* with *Donginsuhyeolchimgugyeong*, *Uihakipmun*, *Donguibogam*, and *Chimgudaeseong*

Acupoint	<i>Yeongsochimgugyeong</i>	<i>Donginsuhyeolchimgugyeong</i>	<i>Uihakipmun</i>	<i>Donguibogam</i>	<i>Chimgudaeseong</i>
KI11 (橫骨)	銅人經云禁鍼	×	禁鍼	禁不可鍼 銅人	銅人 禁鍼
GV11 (神道)	銅人經云禁鍼穴	×	禁鍼	禁不可鍼 銅人	銅人 禁鍼
CV1 (會陰)	銅人經云禁鍼	×	鍼二寸*	鍼入二寸 銅人*	銅人 灸三壯 指微 禁鍼

× : no mention of the acupuncture method.

*GV1 is described as an acupoint to which acupuncture can be applied in the chapter on *Gyeonghyeolgiji* in *Uihakipmun* and *Immaekyujugeupgonghyeol* in *Donguibogam*, but it is classified as a contraindicated acupoint in the chapter on *Geumchimhyeol* in *Uihakipmun* and *Donguibogam*.

Table 3. Contraindicated acupoints for moxibustion in *Yeongsochimgugyeong*

<i>Yeongsochimgugyeong</i>		<i>Chimgugapeulgyeong</i>	<i>Donginsuhyeolchimgu- dogyeong</i>	<i>Uihakipmun</i>	<i>Donguibogam</i>	<i>Chimgudaeseong</i>
Meridian	Acupoint					
Lung	LU8 (經渠)	○	○	○	○	○
Large intestine	LI20 (迎香)	×	○	○	○	○
Stomach	ST7 (下關)	○	○	○	○	○
	ST8 (頭維)	○	○	○	○	○
	ST9 (人迎)	○	○	○	○	○
Spleen	SP1 (隱白)	×	×	○	○	○
	SP9 (陰陵泉)	×	×	○	○	○
	SP14 (腹結)	×	×	×	×	×
	SP20 (周榮)	×	×	○	○	○
Small intestine	SI9 (肩貞)	×	×	○	○	○
Bladder	BL1 (睛明)	×	○	○	○	○
	BL6 (承光)	○	○	○	○	○
	BL10 (天柱)	×	×	○	○	○
	BL30 (白環俞)	○	○	○	○	○
	BL36 (承扶)	×	×	○	○	○
	BL37 (殷門)	×	×	○	○	○
	BL40 (委中)	×	×	○	○	○
	BL40 (委中)	×	×	○	○	○
Triple energizer	TE4 (陽池)	×	○	○	○	○
	TE16 (天牖)	×	○	○	○	○
	TE23 (絲竹空)	○	○	○	○	○
Gall bladder	GB15 (頭臨位)	×	×	○	○	○
	GB42 (地五會)	○	○	○	○	○
Governor vessel	GV6 (脊中)	○	○	○	○	○
	GV15 (瘻門)	○	○	○	○	○
	GV16 (風府)	○	○	○	○	○
	GV17 (腦戶)	○	○	○	○	○
	GV25 (素膠)	○	○	○	○	○

○ : mentioned as a contraindicated acupoint for moxibustion, × : not mentioned as a contraindicated acupoint for moxibustion.

Table 4. Comparison of 3 misquoted contraindicated acupoints for moxibustion in *Yeongsochimgugyeong* with *Chimgugapeulgyeong*, *Donginsuhyeolchimgudogyeong*, *Sipsagyeongbalhwi*, *Uihakipmun*, *Donguibogam*, and *Chimgudaeseong*

Acupoint	<i>Yeongso- chimgugyeong</i>	<i>Chimgu- gapeulgyeong</i>	<i>Donginsuhyeol- chimgudogyeong</i>	<i>Sipsa- gyeongbalhwi</i>	<i>Uihakipmun</i>	<i>Donguibogam</i>	<i>Chimgudaeseong</i>
SP9 (陰陵泉)	銅人云 禁灸	灸三壯	×	×	禁灸	禁不可灸 入門	×
SP14 (腹結)	醫學入門云 禁灸	灸五壯	可灸五壯	×	灸五壯	可灸五壯 銅人	銅人 灸五壯
BL40 (委中)	甲乙經云 禁灸 十四經發揮云 禁灸	灸三壯	×	×	禁灸	禁不可灸 綱目	甲乙 禁灸

× : no mention of the moxibustion method.

고찰

저자들은 해방 이후 한의학 교육 목적으로 편찬된 서적인 『영소침구경』에 금침혈 27개와 금구혈 27개가 수록되어 있고, 이 경혈들이 금침혈 및 금구혈로 가장 많이 수록된 서적은 『의학입문』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금침혈과 금구혈의 '비고'에 기재된 침구금기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금침혈 중 황골(KI11), 신도(GV11), 회음(CV1)은 '비고'에 기재된 금침혈 관련 내용과 인용된 서적에

기재된 내용이 다르고, 연액(GB22), 슬양관(GB33), 영대(GV10)는 '비고'에 금침혈로 분류한 근거가 없었으며, 견정(GB21)은 금침혈로 분류한 이유를 저자가 '비고'에 직접 언급하였다. 또한 금구혈 중 음릉천(SP9), 복결(SP14), 위중(BL40)은 '비고'에 표기된 금구혈 관련 내용과 인용된 서적에 기재된 내용이 다름을 확인하였다.

1. 『영소침구경』의 침구금기 서술의 특징

『영소침구경』은 다른 의서와 달리 각 경혈의 이름 및 이명 다음

에 금침혈 또는 금구혈임을 표기하였고, 그 다음에 경혈에 대한 설명을 오수혈 및 오행 속성, 부위, 취혈, 해부, 주치, 부어, 비고의 순서로 기재하였다(Fig. 1). 경혈의 이름 다음에 금침혈 또는 금구혈임을 표기한 것은 기존 의서의 형식과 매우 다르다. 19세기 이전에 간행된 의서들은 각 경혈에 대한 설명에 침구 시술 시 주의사항을 서술하고, 금침혈 또는 금구혈을 별도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침구갑을경』의 경우 경혈별로 이름, 이명, 위치, 특징, 취혈법, 침구 시술법과 함께 침구 시술을 금지하거나 주의해야 하는 사항을 기재하였고, 아울러 「침구금기(鍼灸禁忌)」편에 경혈 별 침구금기를 별도로 정리하였다³⁾. 『천금요방』과 『천금익방』도 『침구갑을경』과 비슷하게 경혈별 설명에 침구 시술법 및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추가로 「천금요방·침구금기혈」과 「천금익방·금기법」에 경혈 별 침구금기를 정리하였다⁴⁾. 『의학입문』의 경우 「경혈기지」에 경혈을 설명한 후 침구금기를 기재함과 동시에, 별도로 「금침혈」 및 「금구혈」에 침구 시술시 주의해야 하는 경혈과 그 이유를 칠언절구(七言絶句)의 형태로 기재하였다^{7,8)}. 『동의보감』은 「침구편」에 경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침구금기를 기재하였고, 추가로 「금침혈」과 「금구혈」 장을 만들어 금침혈 및 금구혈의 이름을 나열하였다^{9,10)}.

이러한 전통적인 침구금기 서술 방법과는 다른 『영소침구경』의 고유한 금침혈과 금구혈 표기 방식은 독자가 침구 시술을 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경혈을 인지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경혈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의 경우 19세기 이전의 의서들처럼 별도로 금침혈 및 금구혈이 정리된 것이 이해하기 편할 수도 있지만, 학생의 경우 경혈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기에 금침혈 및 금구혈의 이름만 나열되어 있으면 그 이유를 파악하기 무척 힘들기 때문이다. 『영소침구경』은 수업 교재를 목적으로 편찬된 서적이므로¹⁾, 침구 시술은 침습적 치료법이기 때문에 시술 시 신체 손상 등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한다면, 경혈의 이름 다음에 금침혈 및 금구혈임을 기재한 『영소침구경』의 독특한 침구금기혈 서술은 안전한 침구 시술을 독자들에게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으로 사료된다.

『영소침구경』은 경혈의 이름 뒤에 금침혈 또는 금구혈이 표기되어 있지만, 별도로 '비고' 부분에 침구시술법 및 침구금기에 대한 설명이 존재하며, 구체적으로는 출전과 함께 자침 깊이, 뜸 시술 횟수, 침구 시술 시 주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비고'는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보충하여 적는다는 의미이기에, '비고'에 기재된 내용 중 침구금기와 관련된 것은 『영소침구경』의 경혈 이름 다음에 표기된 금침혈 및 금구혈의 근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표기 방법은 현재 경락경혈학 공동교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척택(LU5)의 침구시술법 뒤에 '不宜灸(『外台秘要』)'라 표기함으로써 다른 의서에 기재된 침구금기 관련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¹⁴⁾. 다만 '비고'에 금침 혹은 금구라는 표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혈의 이름 뒤에 금침, 금구의 언급이 없는 경우도 많았다. 견우(LI15), 거골(LI16), 유중(ST17), 천추(ST25), 관료(SI18), 찬죽(BL2), 심수(BL15), 용천(KI1), 노궁(PC8), 화종(SI7)의 경우 경혈의 이름 뒤에 금침혈의 표기가 없으나 '비고'에는 금침혈임이 인용되어 있고, 천부(LU3), 척택(LU5), 어제(LU10), 견우(LI15), 화료(LI19), 승읍(ST1), 유중(ST17), 복토(ST32), 음시(ST33), 누곡(SP7), 소해(HT3), 관료(SI18), 대저(BL11), 심수(BL15), 이문(TE21), 연액(GB22), 슬양관(GB33), 구미(CV15)의 경우 경혈의 이름 뒤에 금구혈의 표기가 없으나 '비고'에는 금구혈임이 인용되어 있었다. 이는 『영소침구경』 저자들이 역대 의서에 기재된 금침혈과 금구혈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침구 시술 시 주의해야 하는 경혈을 재분류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경혈의 이름 뒤에 금침혈 또는 금구혈이라 기재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2. 『영소침구경』에 기재된 금침혈 인용

『영소침구경』의 금침혈은 총 27개이며, 이들 모두가 금침혈로 기록된 『의학입문』이었고, 『동의보감』은 25개, 『침구대성』은 24개만 금침혈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는 『영소침구경』의 금침혈이 『의학입문』을 바탕으로 선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영소침구경』에서 금침혈로 규정한 근거는 '비고'에 일부 기재되어 있다. 27개 경혈의 '비고'에 기재된 침구 시술 시 주의사항의 출전을 확인한 결과, 20개는 '비고'에 금침혈로 언급하거나 자침 시 주의사항이 기술되어 있는 동시에 그 출전이 정확하였으나, 황골(KI11), 신도(GV11), 화음(CV1)은 출전과 내용이 달랐고, 연액(GB22), 슬양관(GB33), 영대(GV10)는 '비고'에 금침혈로 규정한 근거가 없었으며, 견정(GB21)은 저자들이 금침혈로 분류한 이유를 직접 언급하였다.

황골(KI11), 신도(GV11), 화음(CV1)은 모두 『동인수혈침구도경』에서 인용하였다고 '비고'에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동인수혈침구도경』이 아닌 『의학입문』과 『침구대성』에 금침혈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영대(GV10)는 '비고'에 침구 시술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의학입문』과 『침구대성』에 금침혈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를 종합하면, 황골(KI11), 신도(GV11), 화음(CV1), 영대(GV10)는 『의학입문』과 『침구대성』을 근거로 금침혈로 분류하였지만, 출전을 표기하지 않거나 오기(誤記)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연액(GB22)과 슬양관(GB33)은 경혈의 이름 뒤에 금침혈로 기재되어 있지만, '비고'에는 연액(GB22)의 경우 '銅人經云禁灸', 슬

양관(GB33)의 경우 '銅人經云鍼五分禁灸'라 하였고, 출전인 『동인수혈침구도경』에 금구혈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의보감』에도 금구혈로 기재되어 있기에, 금구혈을 금침혈로 오기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의학입문』에는 연액(GB22)과 슬양관(GB33) 모두 금침혈 및 금구혈로 기재되어 있고, 『영소침구경』의 금침혈은 모두 『의학입문』에 금침혈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연액(GB22)과 슬양관(GB33)은 『영소침구경』 저자들이 『의학입문』을 근거로 금침혈로 분류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황골(KI11), 신도(GV11), 회음(CV1), 연액(GB22), 슬양관(GB33) 5개 금구혈의 '비고'에 기재된 침 시술 관련 내용이 『침구대성』에 기재된 내용과 유사했는데, 이는 『영소침구경』의 저자들이 『의학입문』을 기반으로 금침혈을 정하였지만, '비고'에 기재된 침구금기 관련 내용을 작성할 때에는 주로 『침구대성』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3. 『영소침구경』에 기재된 금구혈 인용

『영소침구경』의 금구혈은 총 27개이며, 이들 모두가 금침혈로 기록된 문헌은 없었고, 복결(SP14)을 제외한 금구혈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문헌은 『의학입문』, 『동의보감』, 『침구대성』이었다. 이들 26개의 금구혈은 「의학입문·금구혈」, 「동의보감·금구혈」, 「침구대성·금구혈가」에 포함되어 있는데, 「의학입문·금구혈」과 「침구대성·금구혈가」는 같은 내용이고, 「동의보감·금구혈」은 「의학입문·금구혈」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기에¹⁰⁾, 『영소침구경』의 금구혈은 『의학입문』을 바탕으로 선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27개 경혈의 '비고'에 기재된 뜸 시술 시 주의사항의 출전을 확인한 결과, 24개는 출전이 정확하였으나, 음릉천(SP9), 복결(SP14), 위중(BL40) 3개 경혈은 출전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다. 음릉천(SP9)의 경우 『영소침구경』에 '銅人云鍼五分禁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동인수혈침구도경』에는 구법에 대한 언급이 없고, 『침구잡을경』에는 '灸三壯'이라 적혀있는 반면 『의학입문』에는 금구혈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음릉천(SP9)은 『의학입문』에 근거하여 금구혈로 규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복결(SP14)은 『영소침구경』에 '入門云禁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침구잡을경』, 『동인수혈침구도경』, 『의학입문』, 『동의보감』, 『침구대성』 모두 '灸五壯'으로 기술되어 있기에 금구혈로 규정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복결(SP14)과 같은 경락 상의 경혈이자 근처에 위치한 복애(SP16)는 『영소침구경』에 금구혈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의학입문·고정혈법」, 「의학입문·금구혈」, 「동의보감·족태음비경좌우범사십이혈」, 「동의보감·금구혈」, 「침구대성·금구혈가」에 금구혈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한다면, 『영소침구경』을 저술할 때 착오로 인해 복애(SP16) 대신 복결(SP14)을 금구혈로 잘못 표기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위중(BL40)은 『영소침구경』에 '甲乙經云鍼五分禁灸 十四經發揮云禁灸'라 기재되어 있는데, 두 서적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침구잡을경』에는 '刺入五分 灸三壯'으로 기재되어 있고, 『십사경발휘』에는 구법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그런데 『의학입문』의 경우 '鍼五分禁灸'라 기재되어 있었고, 『침구대성』에는 '甲乙鍼五分禁灸'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를 고려한다면, 『영소침구경』의 저자들은 『의학입문』을 근거로 위중(BL40)을 금구혈로 분류하였지만, '비고'를 작성할 때 『침구대성』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동시에 『의학입문』을 『십사경발휘』로 오기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4. 『영소침구경』의 금침혈과 금구혈에 대한 『의학입문』과 『침구대성』의 영향

『영소침구경』에 기재된 금침혈은 27개, 금구혈은 27개였다. 금침혈의 경우, 27개 모두가 금침혈로 기록된 문헌은 『의학입문』뿐이었고, 27개 모두 금구혈로 기록된 문헌은 없었으며, 복결(SP14)을 제외한 26개가 금구혈로 기록된 문헌은 『의학입문』, 『동의보감』, 『침구대성』이었다. 「동의보감·금구혈」은 『의학입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고¹⁰⁾, 「침구대성·금구혈가」는 「의학입문·금구혈」과 내용이 같다. 따라서 금구혈로 기재된 복결(SP14)이 복애(SP16)의 오류로 가정한다면, 『영소침구경』의 금침혈과 금구혈이 모두 수록된 문헌은 『의학입문』이 유일하므로, 『영소침구경』의 금침혈과 금구혈은 『의학입문』을 기반으로 분류한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영소침구경』의 저자들이 『의학입문』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은 아니다. 『의학입문』에는 49개의 금침혈과 45개의 금구혈이 존재하는데, 『영소침구경』에는 이보다 적은 27개의 금침혈과 27개의 금구혈만 기재되어 있다. 이는 『영소침구경』의 저자들이 『의학입문』에 수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금침혈 및 금구혈을 정하였지만, 모든 침구금기 관련 내용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본인들의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취사 선택을 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영소침구경』에 수록된 금침혈 및 금구혈에 대한 출전 및 내용은 '비고'에 대부분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일부 금침혈 또는 금구혈이라는 내용이 없거나 인용한 서적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들 중 상당수가 『침구대성』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점이다. 『영소침구경』의 '비고'에 차침 및 금기 관련 내용이 없거나 인용에 오류가 있는 6개의 금침혈과 3개의 금구혈 중, 황골(KI11), 연액(GB22), 슬양관(GB33), 신도(GV11), 회음(CV1) 5개 금침혈과 위중(BL40) 1개 금구혈의 출전

Table 5. Comparison of therapeutic methods for BL9, BL10, and TE19 in classical medical texts

Traditional medical literature	BL8 (絡却)	BL9 (玉枕)	TE19 (顛息)
<i>Yeongsochimgugyeong</i>	素註云刺三分 銅人云灸三壯留五呼 醫學入門에云禁鍼	銅人經針三分留三呼 (類經)禁鍼	明堂云灸三壯鍼一分不得多出血多出血殺人
<i>Chimgugapeulgyeong</i>	刺入三分留五呼灸三壯	刺入三分留三呼灸三壯	刺入一分出血多則殺人灸三壯
<i>Donginsuhyeolchimgudogyeong</i>	可灸三壯	可灸三壯	不宜鍼即可灸七壯
<i>Uihakipmun</i>	禁鍼灸三壯	禁鍼灸三壯	禁鍼灸七壯
<i>Donguibogam</i>	可灸三壯禁不可鍼銅人	可灸三壯禁不可鍼銅人	可灸七壯禁不可灸銅人
<i>Chimgudaeseong</i>	素注刺三分留五呼 銅人灸三壯	銅人灸三壯針三分留三呼	銅人灸七壯禁鍼 明堂灸三壯鍼一分不得多出血多出血殺人

과 내용이 『침구대성』과 유사하다. 하지만 『의학입문』의 경우 금침혈 중 황골(KI11), 신도(GV11), 회음(CV1), 금구혈 중 음릉천(SP9)과 위중(BL40)이 『영소침구경』의 ‘비고’와 유사하지만 출전이 표기되지 않았고, 『동의보감』의 경우 금침혈 중 황골(KI11), 슬양관(GB33), 신도(GV11)만 ‘비고’와 내용과 출전이 유사하고 금구혈은 모두 출전이 달랐다(Table 2 and 4). 게다가 『영소침구경』의 ‘비고’에 출전과 내용이 정확히 수록된 금침혈도 『침구대성』과 일치하거나 유사한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다양한 의서에 기재된 낙각(BL8), 옥침(BL9), 노식(TE19)의 침구 시술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침구잡을경』, 『동인수혈침구도경』, 『의학입문』에 비해 『침구대성』에 수록된 내용이 『영소침구경』과 유사하다(Table 5). 이는 『영소침구경』의 ‘비고’에 수록된 내용이 『침구대성』의 내용을 기반으로 첨삭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종합하면, 『영소침구경』의 저자들은 『의학입문』에 기재된 내용과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금침혈과 금구혈을 선정하였고, 그 근거를 ‘비고’에 기재할 때에는 『침구대성』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저자들은 『영소침구경』에 수록된 금침혈과 금구혈을 정리하고, ‘비고’에 기재된 출전의 정확성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영소침구경』의 저자들은 총 27개의 금침혈과 27개의 금구혈을 선정하고, 경혈의 이름 뒤에 금침혈 및 금구혈임을 기재하였다.
2. 『영소침구경』의 ‘비고’에는 금침 및 금구 여부, 자침 깊이 등 침구 시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출전이 기재되어 있으며, 27개 금침혈의 ‘비고’에 기재된 내용을 실제 문헌과 비교한 결과, 20개는 내용과 출전이 모두 정확하였고, 견정(GB21)은 ‘비고’에 금침혈로 분류된 이유를 저자들이 직접 언급하였지만, 황골(KI11), 연액

(GB22), 슬양관(GB33), 영대(GV10), 신도(GV11), 회음(CV1) 6개 경혈은 ‘비고’에 금침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출처가 없거나 인용된 문헌과 내용이 달랐다. 하지만 『영소침구경』의 27개 금침혈이 모두 『의학입문』에 금침혈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영소침구경』의 금침혈은 『의학입문』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3. 27개 금구혈의 ‘비고’에 기재된 뜸 시술 금기 관련 내용과 출전을 확인한 결과, 24개는 내용과 출전 모두 정확하였지만, 음릉천(SP9), 복결(SP14), 위중(BL40)은 ‘비고’에 표기된 내용이 출전의 내용과 달랐다. 복결(SP14)을 제외한 26개 경혈은 모두 『의학입문』에 금구혈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복결(SP14)은 『의학입문』에 금구혈로 기재된 복애(SP16)를 오기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렇기에 『영소침구경』의 금침혈 또한 『의학입문』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4. 『영소침구경』의 ‘비고’에 기재된 침구금기는 『침구대성』에 수록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5. 종합하면, 『영소침구경』의 금침혈과 금구혈은 『의학입문』을 기반으로 선정되고, ‘비고’의 침구 시술 및 금기는 『침구대성』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Acknowledgement

문헌의 검색과 내용 확인에 도움을 주신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신상원 교수님과 사진 자료를 사용하도록 도와주신 맥한의 원 한기춘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Funding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2-Year Research Grant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연구비 지원기관은 연구의 설계, 자료 수집과 분석, 출판결정, 원고 작성에 어떠한 영향도 없었음을 밝힌다.

Data availability

The authors can provide upon reasonable request.

Conflicts of interest

저자들은 아무런 이해 상충이 없음을 밝힌다.

References

1. Oh DH, Kim JH, Kim YS, Kim SY. Analysis of tonification and sedation methods in the 『*Yeongsochimgugyeong*』. Korean J Acupunct. 2019 ; 36(3) : 171-80. <https://doi.org/10.14406/acu.2019.021>
2. Kim SY, Kim JH. Study on 『*Yeongsochimgugyeong*』, a specialized text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in Korea. Korean J Acupunct. 2017 ; 34(3) : 136-45. <https://doi.org/10.14406/acu.2017.020>
3. Kwon SO, Kim ST, Seo BK, Park HJ, Hahm DH, Lee HJ. Review on needling of moxibustion-prohibited points in 『*Chimgugapeulgyeong*』. Korean J Acupunct. 2010 ; 27(2) : 57-70.
4. Kwon SO, Seo BK, Park HJ, Hahm DH, Lee HJ, Kim ST. Review on needling or moxibustion-prohibited points in 『Emergency formulas worth a thousand in gold』 and 『Supplement to the formulas worth a thousand in gold』. Korean J Acupunct. 2011 ; 28(1) : 91-100.
5. Lee JC, Seo BK, Kwon SO, Park HJ, Hahm DH, Lee HJ, et al. Review on needling- or moxibustion-prohibited points in 『Illustrated manual for the practice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with the help of a bronze figure bearing acupuncture points』 and 『The classic of supplementing life with acupuncture and moxibustion』. Korean J Acupunct. 2012 ; 29(1) : 1-15.
6. Kwon S, Kim S. A study of acupuncture or moxibustion contraindications in 『*Taipingshenghuifang*』 and 『*Tongrenzhenuijing*』. Korean J Acupunct. 2018 ; 35(1) : 18-26. <https://doi.org/10.14406/acu.2018.001>
7. Chai KM, Kwon S, Yoon DH, Kim S. A study of acupuncture contraindications in 『*Uihakipmun*』. Korean J Acupunct. 2019 ; 36(3) : 150-61. <https://doi.org/10.14406/acu.2019.016>
8. Li C. Introduction to medicine. Seoul : 『*Uisungdang*』. 1994 : 18-9, 53-5.
9. Kim M, Park E, Yoon D, Kim S. A study on the citation of contraindicated acupoints for needling in 『*Dongeuibogam*』. Korean J Acupunct. 2023 ; 40(4) : 169-76. <https://doi.org/10.14406/acu.2023.017>
10. Jung J, Yoon DH, Kim S. A Study on the citation of contraindicated acupoints for moxibustion in 『*Donguibogam*』. Korean J Acupunct. 2025 ; 42(3) : 155-62. <https://doi.org/10.14406/acu.2025.008>
11. Jeon YG, Lee JW, Kim S. A study of acupuncture contraindications in 『*Zhenjiudacheng*』. Korean J Acupunct. 2018 ; 35(2) : 105-15. <https://doi.org/10.14406/acu.2018.012>
12. Yang J. Complete compendium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Seoul : 『*Iljungsang*』. 1992 : 280-1, 306, 316, 335, 337, 349, 358-9.
13. Hua S. Elucidation of the fourteen meridians. In: Supplement to the complete library of the four treasuries. Shanghai : Shanghai Chinese Classics Publishing House. 2002 : 691, 695.
14. Koo ST, Kwon OS, Kim SY, Kim SN, Kim ST, Kim EH, et al. Acupuncture points (Volume I). Seoul : 『*Jeongdam*』. 2020 : 22.